

개성공단 철수로 남북관계 ‘제로시대’

연락채널 모두 끊겨… “신뢰회복 오래걸릴 수도”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남측 인원이 29일 모두 철수하면 남북관계도 완전히 단절된다.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과 이어진 정부의 5·24조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남북관계의 여러 악재에도 명맥을 유지하며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공간을 지켜온 방패막이었다.

북한의 개성공단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도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는 6·15의 약속자로 태어난 개성공업지구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와 정부의 남측 인원 완전 철수로 개성공단은 착공 이후 처음으로 남한 사람이 1명도 남지 않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정부가 단전과 단수조치까지 취하게 되면 개성공단에는 전등불빛마저 사라지며 사실상 공장만 남은 ‘폐공단’이 되고 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개성공단의 가동이 멈췄다는 것은 남북간의 신뢰 수준이 밑바닥까지 추락했다는 것”이라며 “이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이 완전히 가동을 멈추면서 남북간의 소통채널도 더는 작동하지 않게 됐다. 공단에 체류하는 인원

이 ‘제로(0)’가 되면서 그동안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연락을 주고받던 채널이 끊기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남측 간을 연결 해온 유일한 연락채널이었던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선을 차단한 바 있다.

1971년 8월 당시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

해 그해 9월 20일 열린 제1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의사소통로의 필요성에 공감한 남북 양측은 이를 뒤

판문점 남측 ‘자유 집’과 북측 ‘판문각’ 사이에 전화 2회선을 개설해 첫 통화를 시작했다.

직통전화 개설 이후 적십자 회담이 본격화되면서 남북 적십자는 판문점

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남북 대화 시대를 열었다.

결국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던 1971년 9월 남북간 소통채널이 처음으로 이어졌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가동 중단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남북간 소통로의 부재로 사소한 오해와 충돌이 감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개성공단의 완전 철수로 남북한이

신뢰의 채널을 복구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당국간 회담 등이 불가피한데 이를 개최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소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을출 연구교수는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민간단체 등의 역할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의사를 북측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전기도 끊기나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남측 인원의 마지막 철수를 앞둔 29일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 개성공단과 연결된 문산변전소의 송전탑이 보이고 있다. 정부가 단전과 단수조치까지 취하게 되면 개성공단은 사실상 공장만 남은 ‘폐공단’이 된다.

／연합뉴스

“인적 네트워크 활용 광주 발전 헌신”

오형국 광주시 신임 행정부시장

오형국(58) 광주시 신임 행정부시장이 지난 24일자로 취임했다.



다.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공무원들의 조언과 지원을 받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중앙부처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광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나갈 생각인지.

▲강운태 시장이 마련해 놓은 광주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적극 보좌하면서 특히,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행정은 결국 시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 시민과 많은 접촉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원하는 바를 파악해 이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총행기자 redplane@

개성공단 업체 103곳 피해 2조8000억원

개성공단기업협회가 29일 개성공단 입주업체 123곳 가운데 103곳으로부터 납겨받은 피해상황을 집계한 결과, 2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이날 “상당수 입주사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 과거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객잔자료를 토대로 피해금액을 산정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원청업체가 공단에 있는 임가공업체에 원부자재를 보내고 완제품을 받을 때 수출·수입신고서를 작

성하는 데 거기에 나온 객잔적인 자료를 활용해 원부자재와 완제품 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발생한 원가손실·원부자재·완제품·공장설비 등을 모두 합쳐보니 2조 8000억원으로 집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안팎에서는 이번 집계에서 빠진 나머지 20개 업체까지 합할 경우 피해액이 3조 5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독수리연습 종료

한반도 정세변화 주목

한미 군 당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해 실시한 실기동(FTX) 훈련인 한미 연합 독수리 연습이 30일 종료된다. 북한이 그동안 명목상 한미 연합 훈련에 반발해 한반도 긴장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훈련 종료가 한반도 정세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독수리 연습에는 군단급, 합대사령부급, 비행단급 부대의 한국군 20여만명과 주로 해외에서 증원된 미군 1만여명이 참가했다.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독수리 연습은 지상기동, 공중, 해상, 특수작전 훈련 등 20여개 연합함 합동 야외기동훈련으로 진행됐다. 지난 26일 포항 일대에서 실시된 여단급 한미 연합 상륙훈련이 마지막 실기동 훈련이다.

／연합뉴스

시설·장비 봉인… 장기간 방치하면 재가동 불능

■ 개성공단 자산 어떻게

개성공단의 마지막 체류인원이 29일 전원 귀환을 추진하면서 공단 철수완료 후 우리 측 자산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이다.

정부는 일단 우리 자산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시켜 재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26일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귀환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 당국에 “남측 각 기존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입주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은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에 따라 우리가 투자한 자본·시설에 대한 보호를 해야한다고 정부

는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은 그동안 개성공단에 생산 설비와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는데 9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이날 귀환하는 50명의 관리인원은 전원 철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언제 다시 가동될지 모를 공단의 시설을 점검하고 봉인하는데 전력을 쏟았다.

그러나 기계 장비의 특성상 아무리 보존을 잘해도 장기간 관리없이 방치된다면 재가동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강산 관광시설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년 9개월 만인 2011년 8월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관

광 시설을 동결, 몰수했다.

그 뒤 식당과 면세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광 시설과는 달리 공장 운영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인프라가 필요해 북한이 자체적으로 가동하기는 어려운데다가 제3국에 운영을 맡길 가능성도 작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국과 외교적 문제도 있고 실리적인 효용도 작아 제3국에 개성공단을 위탁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1~2개월 안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시설 재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자동 폐쇄 수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피해 기업 협력기금 대출 지원 협의

문화상, 영수회담 공식 제의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키는 등 정부부처 차원의 대응에 들어갔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입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과 경험보존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여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현황 조사와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 실무 TF’를 구성해 입주기업 피해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 방문 전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여야 영수회담을 가질 것을 공식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한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폐쇄가 임박한 지금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삼희공인중개사

모든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경매 공매 압류 미준공건물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 /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원룸매매전문

- ★전대전문 1분 룠 14개 월수익 500만원 매가16억2천
- ★전대상대, 농대 1분 룠 14개상가11개월수익 500 매가75억3천
- ★전대전문1분 룠 21개주택전환가능) 월수익 750만 매가8억4천만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보5천 원 2억5)
- ★전대전문 1분 룠21개주택전환가능, 엘리베이터,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월수익 750 매가8억8천(보5천 원2억5천)
- ★쌍촌동 신축원투룸 13개 월수익 500만 매가5억9천
- ★쌍촌동 원투룸 16개 월수익 600만 매가16억9천

쌍촌동 역세권 토지매매

운천역 1분 코너 상업지 광동간도로점 820㎡ 매가26억(병원·전시장·도시형)

수원지구 상가분양 일대전문

1층~7층 까지(695㎡)
학교·병원·독서실·모든임종기능
수원지구 1층 분양 59㎡
매가13억6천(보3천 원140만)
수원지구 3층 분양 임대 280㎡
매가13억3천(보3천 원180)

독서실 급매

수원지구 3천세대 모이엘가 APT후문 2층 91석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증금 5천만 월250 시바약간있음

상담
문의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동(국민은행 LG전자빌)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로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감정가129억 최저가120억
- ▷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감정가172억 최저가120억
- ▷ 서구 쌍촌동 2중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198㎡ 감정가15억5천만 최저가13억8천만
- ▷ 영평읍 녹서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감정가125억 최저가117억

단독주택

-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14억3천만 최저가12억4천만
- ▷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감정가12억 최저가1억4천만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126억 최저가115억
- ▷ 간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194억 최저가111억

토지매매

- ▷ 회운읍 연평리 자연녹지 땅1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1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5억
- ▷ 첨단지구 중심상업지 19억, 30억, 70억
- ▷ 진월동 중심상권 120억

대지/전답

-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교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 첨단, 수완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 ▷ 선운지구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수익형 구분점포

- ▷ 첨단 메인상권 대로변 구분상가 150㎡(45평) 매매
- ▷ 첨단 중심대로변 복층 가능 1.2층 점포 400㎡, 710㎡ 일대
-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 1,200만
- ▷ 첨단 메인상권 1층 구분상가 370㎡ 매매 35억 임대가능

투자 유망 물건

- ▷ 신창동 창고용지(생산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 풍림동 아파트 2층상가 124㎡(38평) 매매 2.5억
- ▷ 월산동 일반상업지역 6층 건물 매매14.7억

후회없는 부동산투자

하늘땅공인중개사와 시작하십시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수 매도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3-0045 010-5536-0382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 매매 또는 교환물건 우선 접수 중!!
- 10억~100억 이상 급매물 대환영!!
- 경매·공매·급매물진 신속해결 비밀보장!!

= 상가 및 사무나(매매) =

- * 첨단지구 월계동 현성업종인 무인텔매매 대지 338㎡ 건평 440평 무인설23실
- * 동구 개림동 현성업종인 사무나 대지1137㎡ 건평1010평(8층건물)
- * 광산구 우산동 상가건물 대지 300평 건평 약 350평
-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상가빌딩 대지 501평 건평 1,415평 (5층건물)
-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상가빌딩 대지 150평 건평 885평 (7층건물)

최고의 위치와 수익률을 보장하는
주요지의 상가건물 다분보유하고 있음.

= 토지매매 =

- * 광산구 광주대 부근 대지4,000평 매매가 평당100만원(조정가)
- * 상무지구 현대아파트 뒷 부근 대지400평 매매가 평당400만원(조정가)
- * 상무지구 대대로변 최고 중심지역 대지650평 매매가 평당1,500~1,400만원
- * 상무지구 우익사부근 대지 약1,000평 매매가 평당500만(조정가)
- * 북구 광주역부근 대지300평 매매가 평당500만원(조정가)
- (각 지역/특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 * 진월동수후 내방한터전 한일상업현황!!

☎ 956-6660 / 010-2139-6255
FAX. 956-6608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 원,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3억, 월2500만원 매39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3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5억, 월4100만원 매80억원
- 광산구 수원지구(5층) 보2억천,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창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점 자연녹지 3,400㎡ 매31억원 (병원,사육,장례예식장)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사육)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408㎡ 매 8억4천 원(식당,유흥노래방)
- 치평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사육,전시장)
- 마복동생산녹지 도로점 895㎡ 매가11억원(식당,사육)
- 쌍촌동 운전역부근 상업지 845㎡ 매가125억 (사육,전시장,병원,도시형)
- 세종시 중심상업지 1715㎡ 매가62억원 상가분양투자준조
-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

☎062-3281-6001
010-3753-0033

원룸 교환

두암동4층 원룸

대 지 324㎡
건 물 482㎡

14세대

매매가 5억1000만원
내·외부리모델링
유지없음

보증금 2억5100만원
월세160만원
월세전환시

보증금5600만원에
월세 455만원 가능

커피전문점 또는
타점포와교환가능

☎062-267-2006